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성찬식: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 ② 창립주일: 다음 달 7월 10일은 교회 창립 12주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20일(수)은 창립감사 갈보리 음악축제를 갖습니다.
- ③ 갈보리 장터: 성전 건축헌금을 위한 갈보리 장터 코너를 마련합니다. 기증받은 물품을 전시 혹은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하고 필요하신 성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3 남 선교회)
- ④ 모임: 3 남선교회, 2 여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 ⑤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 ⑥ 바자회: 2 여선교회 주관 바자회가 6월 26일 주일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품목 - 의류, 신발
- ⑦ 연합집회: 뉴질랜드 전교회연합 불신자 초청집회가 있습니다. 일시: 6.25 (토 오후7시), 6.26 (주일 오후6시) 장소: Vector Arena City 강사: Grey Laurie
- ⑧ 훈련: 제 9기 아버지 학교가 개설됩니다. 일시: 6.30(목), 7.1(금), 7.7(목), 7.8(금) 오후 6시-10시 30분 강사: 김학룡, 김성복 회비: 150불 장소: 뉴라이프 처치 (24 Akoranga Dr. Northcote T:410-1004)

6월 기도자 및 안내담당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5일	정관영	장연식	유승재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2일	박일영	방명아	김현주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9일	현석호	원미경	심창진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26일	고성일	최장한	공동체	추미선/이경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 환자를 위해**
1.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기섭 형제와 그의 가족을 위해
 2. 교회안에 여러 병환으로 고통속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로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 가정을 위해**
1. 성전건축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더 많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2. 영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 교회를 위해**
1. 그렉로리 목사 초청 한인교회 연합집회를 통하여 뉴질랜드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2.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죽음을 당한 우간다의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부목사 : 심창진	정관영, 현석호	정덕수, 최재학
	교육전도사 : 진혜령	지휘 : 신경화	유승재, 박제용
		만주 : 송민영, 유지선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국내 선교지

▷ City Mission 섬김
▷ 밀알장애우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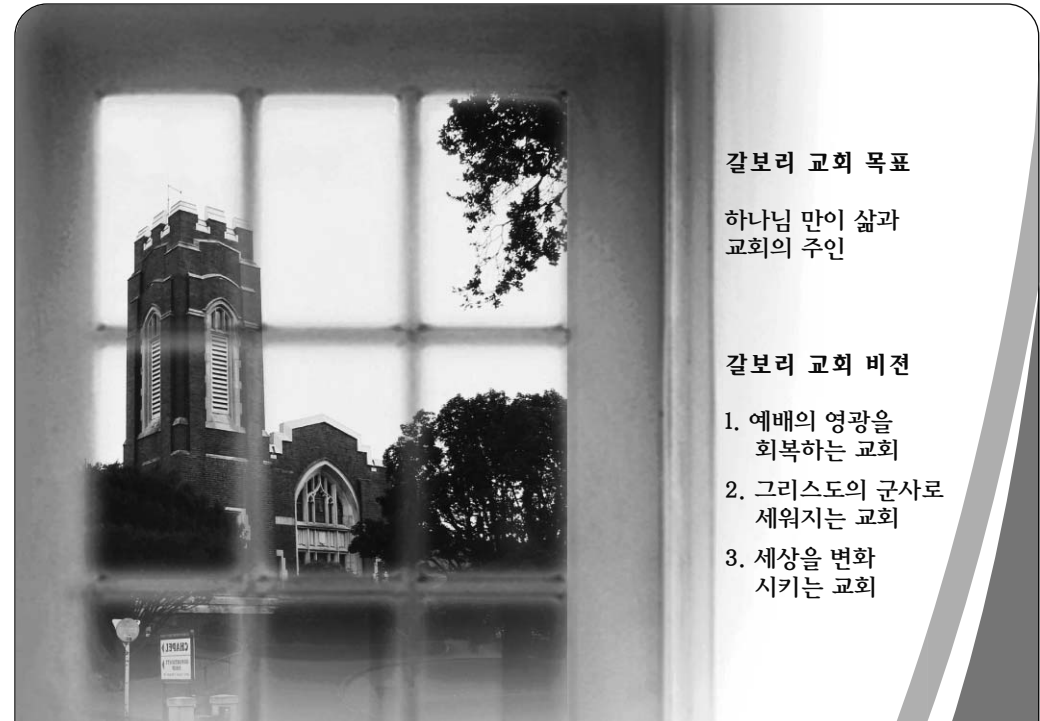
6월 교회일지

선교수요일(루마니아) : 6월 8일 (수요일)

성령강림주일: 6월 12일 (주일)

성찬주일: 6월 26 (주일)

공동체주관수요일: 6월 29 (수요일)



갈보리 교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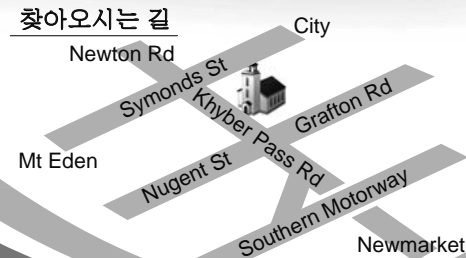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6월 19일

주보 13권 25호

www.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이사야 55:1-2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28장	다함께
*성서교독	35(19). 시편 84편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59장 (193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일영장로	
성경봉독	요한복음 9:1-12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태한목사
찬송	325장 (359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고성일 집사 7월 3일: 박덕철 집사

지나주일통계 | 1부 157명 2부 10명 아동부 15명 총계182명

건축헌금

지난주: \$2,020.00

총계: \$596,011.87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찬양	청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원미경집사	
성경봉독	나훔 1:1-8	인도자
설교	선하신 하나님	심창진목사
찬송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최장한집사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박제용장로	
성경봉독	사무엘상 16:14-23	다함께
설교	왕을 섬기는 왕	심창진목사
찬송	496장 (260장)	다함께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일예찬 기도: 추미선권사

다음 수요일기도: 공동체

갈보리 칼럼

상유십이(尙有十二)의 신앙

- 이태한 목사 -

이순신 장군이 원군의 모함으로 옥살이를 치르고 백의종군 했으나 원군이 왜군에게 크게 패배하는 바람에 다시 지휘봉을 잡게 되었고 선조 임금은 이순신 장군에게 조선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편입해 싸우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상유십이” 즉,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신하(이순신)가 죽지 않았다”는 장개(狀啓)를 올렸습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남아 있던 12척의 배로 적의 배 133척을 ‘명량대전’에서 물리치게 되는, 역사에 길이 남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더욱이 이민자의 삶이라 한국에 있을때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두들 각박한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 아우성들 속에 내 자신도 포함이 되면서 나는 각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전혀 기여한 공로가(?) 없고 나는 그저 피해자고 남들에 의해서 지금의 내 현실이 이렇게 되고, 내 인생에 굴곡이 생겼다고 뉘그러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보다는 있는 것에서 여유와 아름다움을 찾아 보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불려고 몸부림치기 보다는 보이는 것에 미소를 지으며 소망을 품어 보면 어떨까요? 가지지 못했다고 열등감과 억울함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으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보다 더 윤택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게는 적어도 12가지는 더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선택을 하여 봅시다. 12가지가 아니라 122가지도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12 가지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 있을까요?

만약 더 필요한 것이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요, 이기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면 대부분 현세적이요 물질적인 것이기에 상유십이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세적이요, 물질적인 것이 필요없고 그래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25 이하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 보다도 이 상유십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영국의 G.A. 발라드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서 는 벨슨 제독과 어깨를 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번도 패한 일이 없는 위대한 동양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임에 틀림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유십이의 신앙을 가진다면 이순신 장군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한1서 5장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